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3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 아침뉴스 5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중계방송 2013 정당정책 토론회	5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1	50 웰컴 투 시월드(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생생 정보통 스페셜(재)(재)		
12		00 KBS 뉴스 12	50 VJ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 1~2부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		15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	3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2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30 SBS 뉴스 4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분야
3	0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40 와우! 신나는 세계여행 베스트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소치동계올림픽 피겨국가대표 최종선발	25 아기 종벌레 포포(재) 55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안녕 자두야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베스트	05 씨네포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월드챌린지 우리가 간다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명랑해결단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①:20 웰컴 투 돈월드(재)	30 문화책갈피 ①:10 T타임 40 알약톡톡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①:35 특파원 현장보고(재)	15 MBC 뉴스24 35 스포츠 특선 카!센터 50 바비킴·이루마의 TV예술무대	35 나이트 라인 ①:05 SBS골프

EBS

06:10 다문화 고부 열전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골디와 친구들
09:10 시계마을 티키톡
09:20 부모
10:00 한국기행
10:20 요리비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윤혜신의 정겨운 시골맛 밥상 -배추말이 전골〉
11:20 세계테마기행 〈순수의 세계, 극동 러시아 1부 -불과 눈의 땅, 캄차카반도〉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배움너머
13:3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45 바두와 친구들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팅가팅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골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30 피둘리팜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뉴스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아르헨티나〉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한국인과 영어〉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방송 EBS교육 대토론
24:05 다문화 〈사랑〉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00:50 내신 6감 〈수학(상)〉
01:40 〃 〈지리〉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Ⅰ A형〉
05:00 〃 〈수학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생활과 윤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생활과 윤리(3)〉
14:00 2015 수능 스타트 〈수학 A형(1)〉
15:00 〃 〈수학 B형(1)〉
16:00 〃 〈국어 A형(1)〉
17:00 〃 〈영어 A형(1)〉
18:00 탐스런 〈동아시아〉(재)
19:00 〃 〈생활과 윤리(1)〉
20:00 〃 〈생활과 윤리(2)〉
21:00 〃 〈생활과 윤리(3)〉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재)
23:00 세계의 아이들
23:5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EBS플러스2

07:00 하하볼의 상상놀이터(1)~(3)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나의 성공비결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TV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상)〉
10:30 〃 〈수학① (하)〉
11:10 〃 〈역사①〉
11:50 중학 2학년 〈영어〉
12:30 〃 〈문학〉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스쿨랜드
15:20 초등 내공냠냠 〈국어 3-2〉
15:50 〃 〈국어 4-2〉
16:20 〃 〈국어 5-2〉
16:50 〃 〈국어 6-2〉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8:00 〃 〈사회〉
18:40 원더풀 싸이언스(1)(2)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제3편 지금도 마로니에는〉
21:20 등업신공 〈수학① (하)〉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22:40 중학 3학년 〈영어 3-2〉
23:20 〃 〈문학3〉
24:00 EBSe 생활영어
24:30 나의 성공비결(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5일(음 10월 23일 乙未)

子 36년생 탄력이 붙을 것이다. 48년생 근면해야만 한다. 60년생 자신 있게 행한다면 가치를 창출해 낸다. 72년생 몸에 밴 악습 때문에 황당한 경우가 생기리라. 84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85, 77

丑 37년생 지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하느니라. 49년생 감탄할 일이 생길 것이다. 61년생 당연시하여 왔던 것 속에 맹점이 보인다. 73년생 차질을 주지는 않는다. 85년생 힘든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58, 10

寅 38년생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50년생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으니 계획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 62년생 절제가 위기를 모면하게 할 것이다. 74년생 처신하기에 따라 운신의 폭이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18, 79

卯 39년생 투명해야만 하느니라. 51년생 가급적 상대의 숨은 의도를 빨리 간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3년생 의도한다면 더 완벽해질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상호간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36, 29

辰 40년생 무의미하다면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찬란한 영광이 따르리라. 64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 76년생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이가 대업을 이룩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1, 20

巳 41년생 용기 있게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53년생 내일의 발전을 위해 오늘의 불편은 감수하자. 65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놓아야 한다. 77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코 있어라. 행운의 숫자 : 61, 87

午 42년생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54년생 노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진전 되리라. 66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해야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78년생 정확하지 않다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4, 66

未 43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55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라. 67년생 매듭이 풀리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79년생 고민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라. 행운의 숫자 : 07, 39

申 44년생 어떠한 형국이 되더라도 일관되게 대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 68년생 수효는 늘어나지만 내용이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80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하기 쉬운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1, 53

酉 45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57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69년생 변동하지 말고 일단 관망하는 것이 낫다. 81년생 종합적인 정황의 분석을 요한다. 행운의 숫자 : 14, 47

戌 46년생 긴요한 시점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 해야겠다. 58년생 보류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70년생 결론을 내리게 되리라. 82년생 새로운 계획과 설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92

亥 47년생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실행할 일만 남았다. 59년생 먼저 관계 개선부터 해두고 볼 일이다. 71년생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83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8, 7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나는 광대…어떤 역이든 최선 다한다"

창수

영화 '창수' 주인공 임창정

"나는 대중 예술을 하는 광대일 뿐이에요. 어떤 역할을 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든 재벌이든 어떤 역을 주든 잘할 자신이 있어요."

영화 '창수'에서 주연 창수 역을 맡은 임창정의 말이다.

이덕희 감독이 연출한 '창수'의 개봉(28일)을 약 일주일 앞둔 22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임창정을 만났다.

'창수'는 뒷골목 건달의 순정을 그린 누아르다. 거대 조직 보스의 여자를 사랑하게 된 뒷골목 건달의 비극을 그렸다. '창수'라는 캐릭터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영화는 임창정을 위한 작품이다.

"'창수'는 우리네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창수처럼 불의를 보면 나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다르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남자의 일생인 것 같아요.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수의 대사 중에 '죽는 것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공감했던 말이고, 영화를 보는 많은 남성도 공감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류 건달의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영화는 '파이란'(2001)을 떠오르게 한다. 영화를 연출한 이덕희 감독은 '파이란'의 조감독 출신이다.

"주인공 최민식 선배를 모델로 하거나 연기를 하면서 그의 연기를 떠올려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창수'라는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들의 이야기니까요. 이번에 나온 노래의 제목도 '나란 놈이란' 입니다. 제가 작사·작곡한 곡인데, 창수와 비슷한 정서인 것 같아요. '나란 놈이란, 창수'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웃음)

임창정은 한때 '타고난 연기자'라는 말을 들었다. 그의 연기에는 슬픔과 비극, 엉뚱함이 공존했다. '색즉시공'(2002)에서의 슬픔이 담긴 코미디, '행복한 장의사'(2000)에서는 따뜻한 드라마, '시실리 2Km'(2004)에선 엉뚱한 스릴러 연기가 돋보였다.

"사람은 주변환경에 따라 누구나 다 변합니다. 다행히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선배들이 해주는 말을 허투루 안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알게 된 건데 나이 든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었다. 역할은 줄어들었고, 메이저 영화 감독들은 그를 찾지 않았다.

"제가 ('색즉시공'을 함께 했던) 제균이 형(윤제균 감독)에게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서운한 것도 없다고요. 천만 영화를 찍으며 잘 나가던 형이었죠. 형은 만나면 미안했던지 '언젠가 작품 하자'고 제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 '형이 망가졌을 때, 아마 나를 쓰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웃음) 농담삼아 한 말이지만,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리막을 서서히 걷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이혼이라는 위기가 그의 삶을 강타했다.

"아무리 화가나도, 한숨만 새어나와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웃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웃었어요. 그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화를 내도 웃는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황에 누군가로부터 '좋은 일 있나보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력하다보면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조 패시와 로버트 드니로를 좋아하며 배우로서의 꿈을 좇았던 그는 이제 마흔을 넘겼다. 인생이란 굴곡의 연속이란 사실도 조금은 알게 됐다. 또, 미래란 알 수 없기에 지금은 그저 "맡은 소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연합뉴스

'2013 MAMA' 대상 조용필·지드래곤·엑소 수상

가왕(歌王) 조용필, 빅뱅의 지드래곤, 그룹 엑소가 '2013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세 개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

2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AWE)에서 열린 '2013 MAMA'에서 조용필은 히트곡 '바운스(Bounce)'로 '올해의 노래상', 지드래곤은 '올해의 가수상', 엑소는 앨범 'XOXO'로 '올해의 앨범상' 등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드래곤은 '남자가수',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 솔로', '베스트 뮤직비디오' 상도 받아 4관왕을 달성했다.

다음은 각 부문 주요 수상자 명단 ▲올해의 노래상= 조용필 ▲올해의 가수상= 지드래곤 ▲올해의 앨범상= 엑소 ▲남자가수상= 지드래곤 ▲여자가수상= 이효리 ▲남자그룹= 인피니트 ▲여자그룹= 소녀시대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솔로= 지드래곤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솔로= 씨엘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그룹= 샤이니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여자그룹= 씨스타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남자= 이승기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여자= 에일리 ▲베스트 랩 퍼포먼스= 다이나믹듀오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 버스커버스커 ▲베스트 콘서트 퍼포머= 이승철 ▲신인상 남자= 로이킴 ▲신인상 여자= 크레용팝 ▲NISSAN JUKE 베스트 뮤직비디오= 지드래곤 ▲올해의 발견= 배치기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 중국= 곽부성 ▲스타일 인 뮤직= 씨스타 ▲넥스트 제너레이션 글로벌 스타= 에이핑크 ▲소니 MDR 월드 와이드 퍼포머= 인피니트 ▲인터내셔널 페이버릿 아티스트= 일비스(Ylvis) ▲뮤직 메이크스 원 앰배서더 어워드=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맛으로 즐기는 이색 단풍놀이

한국기행(EBS 밤 9시30분)='단풍' 1부 신선이 노닐던 곳.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진 두타산. 청옥산과 붙어있어 두 산은 하루 등산코스로 유명하다. 두타산과 청옥산을 이어주는 것은 무릉계곡. 풍광이 빼어난 이곳에 단풍이 내려앉으면 등산객들로 붐빈다.

무릉계곡 아래 동네 아낙들은 단풍 소식을 듣자마자 오색 단풍을 채취하러 바구니를 들고 길을 나섰다. 눈으로 즐기던 단풍의 변신. 단풍잎으로 단풍전, 단풍무침으로 만들어 맛으로 즐기는 이색 단풍놀이가 열린다. 단풍이 반가운 이들이 또 있다. 천연염색을 하는 동해시 농업대학 겸임교수 김수희 씨와 그의 제자들이다. 자연의 색을 입은 명주 천이 바람에 살랑 흔들리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노래가 절로 나온다.

고민 사연 분석 순위별 결과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KBS2 밤 11시10분)= KBS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가 3주년을 맞이했다. 3주년 특집 '안녕하세요'에서는 그동안의 고민 사연을 분석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통계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순위별 결과를 전격 공개한다.

'안녕하세요'를 빛낸 인상적인 출연자도 만나볼 수 있다. 선천적으로 파란색 눈동자를 지닌 초은이네 가족의 변화된 최근 일상과, 결혼 5개월 간 7번 집에 들어온 자유분방한 농부의 아내의 최근 모습도 공개 될 예정이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발라드 왕자 성시경과 영원한 국민 첫사랑 '미쓰에이'의 수지, 다재다능 아이돌 '씨앤블루'의 이정신이 게스트로 출연해 함께 한다.

태풍 '하이옌' 그 끝에 남은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 필리핀 태풍 피해 특집. 지난 11월 8일, 필리핀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슈퍼 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앙부를 강타한 것이다. 최대 순간 풍속이 379㎞, 세계 기상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하이옌'의 위력은 대단했다. 거친 비바람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렸고 순식간에 집과 건물이 붕괴되면서 도시는 초토화 됐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지 십 여일. 세계 각국에서 각종 구호물품과 인력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재민들은 쓰레기와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태풍 '하이옌' 그 후, 절망의 땅에 남겨진 이들의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